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12월 / 통권 502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007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008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며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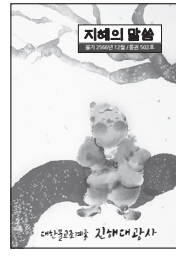
생각의 터 · 4
나이 값 / 운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맹구우목 (盲龜遇木) / 무경스님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12월 법회 및 행사 · 13
자비도량참법기도
동지기도 접수
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 총회
송년 및 타종식 법회

알림마당 · 14
고맙습니다
제 21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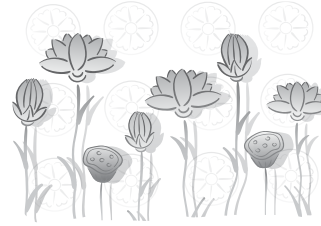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나이 값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공자는 그의 친구 원앙이 늙어서도 젊은이들의 짐이 될 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존재로 사는 것에 대해 이렇게 꾸짖었다.

"나이 먹어서도 나잇값을 못 하고 아무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은 어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음식을 훔치고 의복을 훔치는 도적에 불과하다. "

산다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로운 인연을 맺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이익케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서 나이는 그때그때의 적절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아이 때의 역할과 청년 때의 역할이 다르며 장년이나 노년의 역할이 다르다.

아이는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하며 청년은 청년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노년은 많은 경험과 경력을 거친 존재이기에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젊은이들이 잘 수용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길잡이 노릇을 해야 한다.

나이에 따른 저마다의 역할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 요소가 된다. 젊은이는 힘과 용맹으로 나라를 지키고, 중장년은 젊은 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노년은 저들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구나 각 분야의 역할이 계층과 적성에 따라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분업화의 현시대에서는 나이에 따른 계층별 역할 분담은 필연이다.

이는 이미 수천 년 전 공자나 석가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바 있으니 이른 바 20세 이전엔 공부와 수련을, 삼십 즈음엔 의혹 없는 신념의 노력을, 노년에는 이치를 따른 순종의 삶을, 이렇게 각자에게 알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공자는

말했으며 석가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역할을, 자식이 부모에게 기울여야 할 노력을,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자가 스승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를, 내지는 지도자나 통치자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하게 아함경에서 내리셨다.

늙어서 기력 없다는 핑계만 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기반찬에 쌀밥만을 노래하고 좋은 옷을 구한다면 도둑에 불과하다는 공자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늙을수록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참회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이 일생을 살며 겪은 수많은 경험과 경륜은 도서관의 수만 권 장서에 버금가는 엄청난 정보와 기술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 많은 정보와 기능을 좋은 세상 만드는데 열심히 보태고 지도하여 늙음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

원효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쌀로 밥을 지으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모래로 밥을 지으려 한다."

쌀로 밥을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실로 밥을 지으면 맛있는 밥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도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이치에 합당한 삶의 방법을 터득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후인들에게 세상 사는 지혜를 지도해 줄 아무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나잇값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시들어진 몸으로 볼품없이 늙어있는 세상에 아무 도움도 못 되는 썩은 나무토막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늙어서 더 친근감이 가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따듯하고 배울 것이 있는 노인으로 늙어지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하고 재치있는 젊은이가 되고, 신념과 의지가 확실한 장년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주는, 그렇게 나이에 따른 저마다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살아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제 가치를 다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살아 있는 존재로서 아무 곳에도 쓰일 수 없는 무용지물 되면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공자는 친구 원앙에게 이런 독한 말을 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

맹구우목(盲龜遇木)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11월 8일.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개기월식이 있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 경우, 지구가 달을 가리고 달이 천왕성을 동시에 가리는 엄폐식까지 있어 특별했다.

참고로 엄폐식까지 함께 생기는 개기월식은 전세계에서도 100년에 한두번 볼 수 있는 진귀한 광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0년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땅에서 다시 보려면 앞으로 200년은 지나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보다 훨씬 만나기 힘든 귀한 인연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사람 몸 받는 것과 부처님 법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사람 몸 받아 불법을 가까이 하다보면, 정말 귀한 인연은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

몇일 전 보살님 한 분과 차담을 나눈 일이 있었다. 대광사 불교

대학 초창기 졸업생이시고, 함께 공부하셨던 불자님들 모두 훌륭하셔서, 2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화합 잘 되기로 유명한 기수이다. 그래서 만난 김에 그 비결을 물었다.

보살님은 특별한 비결 보다는 당시 함께 공부 했던 도반들과 모임을 만들어, 졸업 후에도 두 어달에 한번 씩은 전국 기도도량을 돌며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동고동락이 화합의 비결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동고동락을 함께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혼자서도 아쉬울 것 없는 세상. 비양심도 개성이 되는 세상. 싫으면 안 봐도 되는 세상. 무관심이 매너가 되어 버린 세상.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굳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함께 하고, 굳이 함께 즐기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함께 즐긴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 끼리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기꺼이 동고동고락을 함께 하는 좋은 사람들을 '도반'이라고 부른다.

스승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 준다면,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은 도반이다. 때로는 나 자신이 종교적으로 한단계 성장하는데 있어서, 스승의 고차원적인 가르침 보다는 도반의 현실적인 조언이 도움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옛부터 훌륭한 도인

들 옆에는 항상 훌륭한 도반들이 있었다.

때문에 막상 사람 몸 받아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진짜 만나기 힘든 귀한 인연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는 '좋은 도반'임을 알게 된다.

필자도 좋은 도반들이 많다. 한 도반스님은 배려심과 이해심이 너무나 넓어 가끔 사석에서 농담삼아 '스님'이 아닌, 관세음보살님처럼 '보살님'이라고 높여 부른다.

그런가하면 어떤 도반스님은 포용력과 공심(公心:사사로운 욕심 없음)이 너무 훌륭하여 '공심제일(公心第一)'이라 부르고, 또 어떤 도반스님은 평소 장난 끼도 많고 육두신공(肉頭文字)도 곧잘 하시는 재밌는 스님이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는 목숨을 건듯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신심라한(信心羅漢)'이라 부른다. 필자에게는 분에 넘치는 참 귀한 인연들인 셈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좋은 도반의 공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하루는 부처님 비서실장이었던 아난다 스님이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좋은 도반을 만나 함께 수행하는 것은 이미 수행의 절반을 완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도반을 만나 함께 수행하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좋은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비유하면 이렇다.

넓디 넓은 바다에는 언제 어떤 사고로 파손되었는지 알 수 없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있었다. 이 구멍 뚫린 나무 판자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정처 없이 오대양을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는 거북이 한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거북이는 삼백년에 한번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때마침 구멍 뚫린 나무 판자는 거북이 머리 위를 지나갔고, 거북이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자 나무 판자 구멍으로 나왔다. 과연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처럼 좋은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현실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는 우리 자신이 먼저 남들에게 좋은 도반이 되어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자비도량참법기도

- 입재 :12월 8일 오후 2시 설법전
- 회향 :12월 17일 오후 2시 설법전
- 동참금 : 10만원(본인 및 영가2위 축원)

대광사 12월 법회 및 행사

◈ **12월 8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12월 8일 : 자비도량참법기도 입재** 오후 2시

◈ **12월 17일 : 자비도량참법기도 회향** 오후 2시

◈ **12월 20일 : 동지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12월 22일 : 동지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동지시 06:48)

◈ **12월 23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12월 25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동지기도 접수

■ 입재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회향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동지시 06:48 ■ 동참금 : 3만원

송년 및 타종식 법회

■ 2022년 12월 31일 오후 9시

■ 다라니 108독기도 및 타종식

대광후원회

(2022.10.18.~2022.11.17)

송성수 10,000	정진이 10,000	이봉희 10,000	박진호 100,000
홍승운 20,000	박미애 10,000	최경순 20,000	원광한의원 100,000
황두관 10,000	이인숙 10,000	조한분 50,000	㈜카텍홀딩스 300,000
김경남 20,000	오현철 20,000	정대식 50,000	
변창인 20,000	강성진10,000	정계아 50,000	
정미선 20,000	배수진 30,000	배동환변호사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

피교순 1만원 김영우 10만원 송종화 1만원 홍기준 2만원 주창은 10만원
양재봉 1만원

♥ 설담장학회

대광사(주지스님) 10만원 김기철 30만원 이희숙 10만원 김이나 10만원
변지오 1만원

※ 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 총회

● 2022년 12월 28일 18시 J컨벤션(구.해군회관) 2층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佛紀 2567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1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3년 2월 28일~3월 29일	2023. 4. 4(화) ~ 11. 29(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3년 4월 2일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 2023년 2월 말까지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